

주요 내용

국내 실물 부문

경기 종합 : 설비투자 부진 속의 경기 회복

- (동향)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산업 생산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됨
- (전망) 성장 주도부문이 부재한 가운데, 2/4분기 이후 성장률이 횡보하는 루트($\sqrt{\quad}$)형의 경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증시 침체가 발생할 경우 경기가 W자형을 그릴 가능성도 상존함

산업 생산 : 다수 업종으로 증가세 확산

- (동향)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지속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으로 18.4%의 급등세를 보임
- (전망) 증가세가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노사관계 악화 등의 악재가 발생할 경우 다시 감소세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음

고용 : 실업률 하락세 속에 고용 불안 심화

- (동향) 지난 11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3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 반면 비상용근로자 및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증대하면서 고용 불안은 심화
- (전망) 계절적 요인이 소멸되고 기업들의 신규 채용 경색이 일부 해소되는 4월 이후 실업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겠지만 99년 중에는 7%대의 고실업은 지속

소비 : 회복세 지속

- (동향) 자동차의 판매 호조와 도매업의 증가세로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하여 1월 이후의 증가세를 지속
- (배경) 주식시장의 호조로 인한 자산 가치의 상승, 임금 상승 및 98년의 급속한 위축에 대한 상대적 반등 등에 기인
- (전망) 향후 이러한 요인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 회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7%대의 고실업이 소비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 : 부진 지속

- (동향) 국내기계수주는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수주 금액은 94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년의 급감에 대한 반등 측면이 강하며 건설수주는 경기 후행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50%대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전망) 경기 회복 조짐에 따라 설비투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이나 건설 투자는 민간의 주택 수요와 정부의 SOC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이후에나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대외거래 : 자본재에 의해 주도된 수입 증가

- (동향)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출 환경의 불안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은 98년 중의 급감에 대한 상대적 반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전망) 호조 및 부진 요인이 혼재하는 가운데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은 자본재 수입 증가세에 더하여 향후 원자재 수입까지 반등할 경우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물가 : 인플레이션 압력 미약

- (동향) 4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및 석유류를 비롯한 공산품 가격 상승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로는 0.4% 상승
- (전망) 내수 부진,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전년의 급등에 따른 기술적 요인 등으로 99년 중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다만 대내외 불안요인 상존과 전년 5월 이후의 하락세로 인해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률 상승세 예상

경기 종합 : 설비투자 부진 속의 경기 회복

채 창 균 (ckche@hri.co.kr ☎ 724-4031)

투자 부진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의 지속성이 약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경기 상승을 본격적으로 주도할 부문이 없어 2/4분기이후 성장률이 정체되는 $\sqrt{\quad}$ 형 경기 사이클을 보이거나, 증시 침체시 W자형 경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유동성을 실물 부문으로 연계하는 고리가 많을수록 투자 회복을 통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증시와 실물간의 괴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임

【동향】

-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산업 생산의 증가세 지속
 - 투자와 수출(수출물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감소)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생산이 위축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3월 중에는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18.4% 급증하여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
 - 그간 70% 내외에서 홍보하던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4.6%로 높아짐
- (소비 호조의 배경) 최근의 소비 회복세는 저금리의 지속,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자산소득 증대 그리고 98년의 지나친 내핍 생활에 대한 반등 차원에서 나타난 것
 - 또한 명목임금의 감소세가 멈춘 것도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함
- 그러나 투자 부진속 소비주도 성장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함
 -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됨. 생산적 부문에 대한 신규 및 첨단설비투자 확충에 의해 수요가 증가해갈 때 경제 회복세가 지속력을 얻게되며 우리 경제의 확대재생산이 가능해질 것임
 - 수출 부진은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 중장기적으로 외채 관리에 어려움 야기

【√형 경기 사이클 가능성】

- (성장 주도 부분의 부재) 수출 및 내수가 모두 경기를 견인할 정도로 호조를 보이
기 어려워 경기 상승을 주도할 부문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임
 - 고실업 상태의 지속으로 최근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성을 띠기에는 한계가 있음.
90년대 이후 외환위기를 겪었던 스웨덴, 핀란드 및 멕시코 등에서도 소비 증가는
경기 회복 이후에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났었음
 - 구조조정의 지속으로 투자도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실정임
 -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나머지 업종의
수출은 지난해 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엔저가 지속되거나 미 주식시장의 버블
붕괴에 이은 미국 경제의 침체가 현실화되면 수출 부진은 더 심화될 수 있음
- (2/4분기 이후 성장률 정체 가능성: √형의 경기 사이클) 최근 98년의 급속한 위
축에 대한 반등으로 생산 회복세가 총수요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어 성장세를 시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소폭 회복되고, 98년의 급속한 위축에 대한 반등으로
생산 회복세가 총수요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어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 특히 수요 회복 정도에 비해 생산 회복세가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재고
감소 폭 축소의 경제성장 기여 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
 - 그러나 건설 투자의 부진 지속, 수입 증가 등이 성장률 상승세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고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성장률 제고 효과도 제한되며 소비 회복
세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2/4분기 이후 성장률이 횡보하는 루트(√)형의 경
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W자형 가능성도 상존) 버블 붕괴시 W자형 경기 양상을 보일 것임
 - 경기가 루트(√)형을 그리는 반면, 증시의 최근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증시의 버
블은 피할 수 없을 것임
 - 증시의 버블이 붕괴되면 소생 기미를 보이던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실물 부문이 급속히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내적 요인에 더하여 미국의 증시 붕괴 등 해외 악재가 겹칠 경우 경기 위축의
골이 너무 깊어져, 다시 경기가 상승세를 타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
- (투자 회복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려면?) 구조조정이 조기에 완료되고 금융권의 유

동성이 실물 경제로 유입되도록 각종 연계책 강구

- 경기 회복 전망이 높아져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자제하고 있는 것은 아직 과잉설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채비율을 200%로 맞추어야 하는 상황의 영향도 적지 않음
- 유동성이 실물 경제 활용을 위한 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많이 만들고 투자를 위한 기업의 자금 수요를 회복시켜 주식시장의 버블 가능성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 생산 : 다수 업종으로 증가세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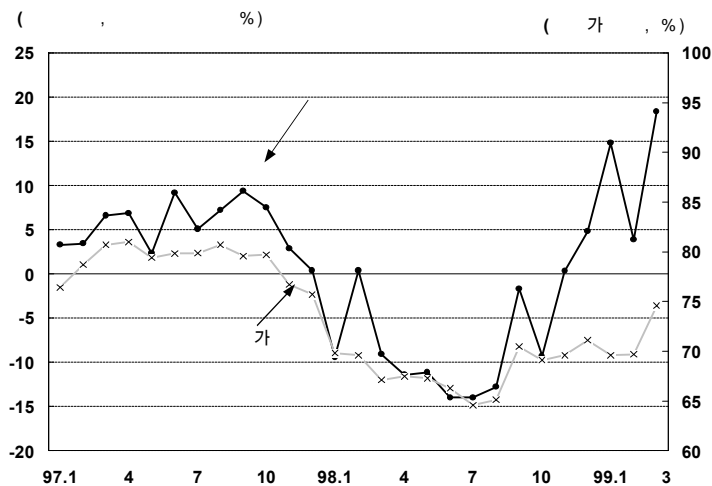
이 보 성 (bslee@hri.co.kr ☎724-4035)

3월 중 산업 생산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지속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으로 18.4%의 급등세를 보임. 이러한 증가세는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노사관계 악화 등의 악재가 발생할 경우 다시 감소세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음

【동향】

- 3월 중 산업 생산은 95년 2월(19.3%) 이후 가장 높은 전년동기대비 18.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
 - 이는 반도체, 사무회계용 기기, 선박 등의 수출 호조와 자동차, 음향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한 내수 신장에 기인한 것이며 지난해 3월의 생산 수준(9.1% 감소)이 낮았던 것에 대한 상대적 영향도 작용
 - 생산 지수도 125.0을 기록, 외환위기 이전 수준(110~120) 보다 높아짐
 - 평균가동률은 전월(69.7%)에 비해 4.9%p 상승한 74.6%를 기록, 98년 9월 이후의 70% 수준에 비해 대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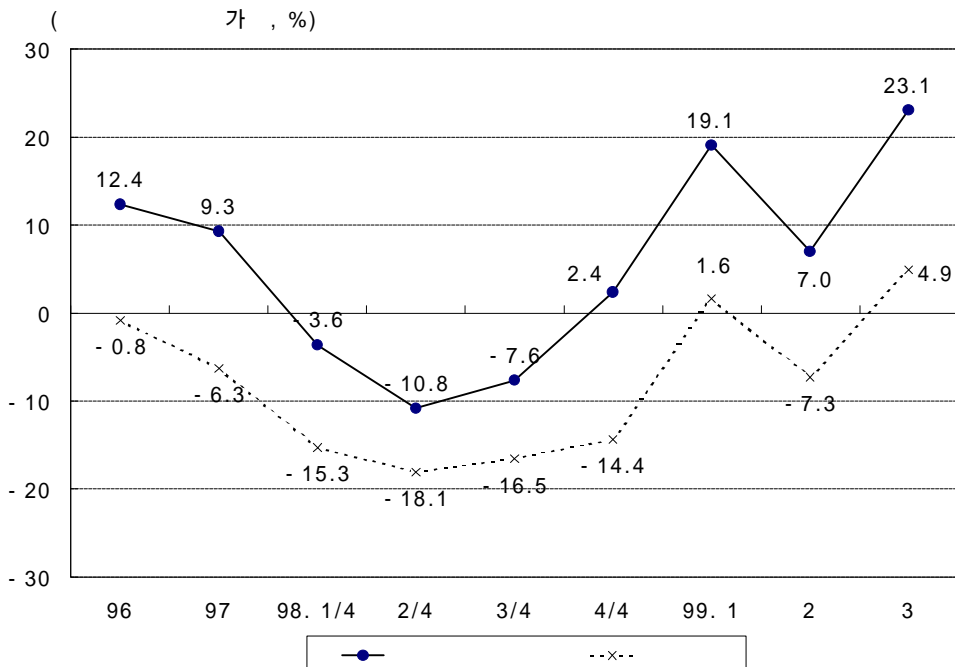
< 최근 생산 동향 >



【특징 : 대부분의 업종으로 생산 증가세 확산】

- 그동안 일부 업종의 호조에 기인하는 바가 컸던 산업 생산 증가세가 3월 들어 비금속 광물, 가죽 및 신발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음
 - 96년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경공업 부분의 생산이 3월 들어 4.9%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중화학 공업 부문은 지난 1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전월 대비로는 목재 및 나무 제품(-11.9%)과 석유정제(-4.9%)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의 생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생산 증가세의 전반적인 확대는 소비 회복에 의한 내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98년 중 지나친 감소에 따른 상대적 반등의 영향도 존재함
 - 도소매 판매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3월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생산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업 구조별 생산 증가율 >



【전망 : 생산 증가세 지속】

- 소비 회복이 지속되고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산업 생산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고 노동비용이 감소하는 등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 데다 대외신인도의 제고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이 호전될 경우 생산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98년의 급속한 생산 위축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산업 생산 증가세 지속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반면, 수출 부진이 해소되지 못하고 노사관계 불안이 확산될 경우 산업 생산 증가세는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비록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비가 외환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부진할 경우 산업 생산의 증가세는 제한될 수 밖에 없음
 - 또한 4~6월에 집중될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산업 생산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수도 있음
- 산업 생산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99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할 전망이다
 - 소비와 설비 투자 등은 소폭 회복이 전망되지만 건설 투자의 부진과 수입 증가 등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2/4분기 이후 성장률이 3.5%대 내외에서 횡보하는 루트($\sqrt{\quad}$)형의 경기 회복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GDP 성장률 전망 >

(전년동기대비, %)

	97년	98년(e)	99년(p)	
			상반기	연간
GDP 성장률	5.5	-5.8	2.7	3.1

고용 : 실업률 하락세 속에 고용 불안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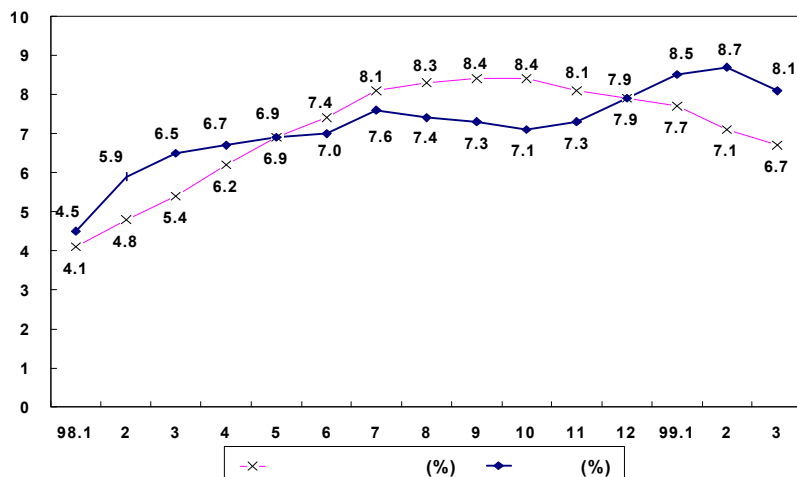
이 보 성 (bslee@hri.co.kr ☎ 724-4035)

지난 11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3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됨. 반면 비상용 근로자 및 단시간 취업자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고용 불안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계절적 요인이 소멸되고 기업들의 신규 채용 경색이 일부 해소되는 4월 이후 실업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겠지만 99년 중에는 7%대의 고실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동향】

- 지난 1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던 실업률은 3월 들어 전월(8.7%)에 비해 0.6%p나 감소한 8.1%를 기록, 하락세로 반전됨
 - 3월 중 실업자 수는 170.4만 명으로 전월(178.5만 명) 대비 8.1만 명 감소에 그쳤으나 경제활동인구가 전월(2,056.2만 명)에 비해 58.1만 명 증가한 2,114.5만 명을 기록, 실업률이 급락함
 - 한편 계절조정 실업률은 감소세를 지속하여 3월 중 6.7%를 기록(2월 계절조정 실업률 : 7.1%)

< 실업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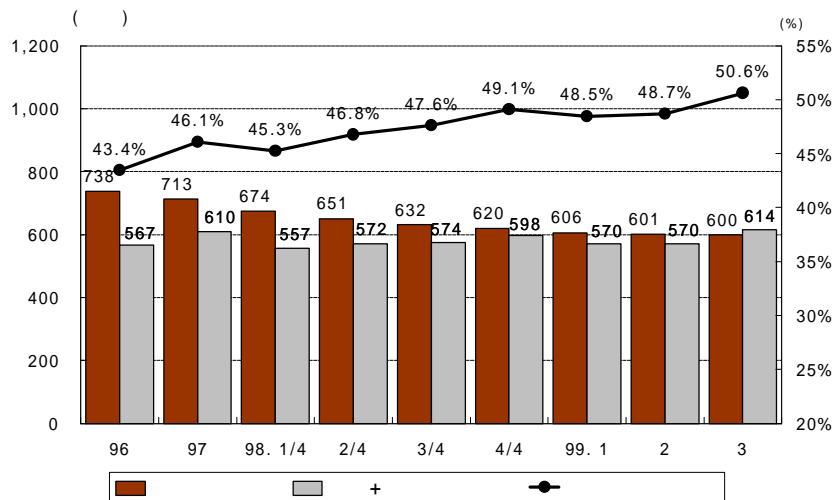
- 이는 계절적 요인의 소멸과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기인함
 - 그동안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농림어업 부분과 건

- 설립의 취업자 수가 각각 31.9만 명과 12.7만 명이 증가함
-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에 따라 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채용이 대폭 늘어남(14.3만 명 증가)
- 또한 그동안 구직난으로 비경제활동인구화되어 있던 잠재실업자들이 최근의 경기 회복 분위기에 따라 구직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월보다 1.5%p 상승한 59.5%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반영

【특징 : 실업률 감소 속의 고용불안 심화】

- 실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에도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비상용 근로자와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고용 불안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 3월 들어 임금 근로자 수는 전월보다 43.6만 명이 증가한 반면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상용직 근로자는 오히려 1만 명이 감소함. 반면,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수는 44.6만 명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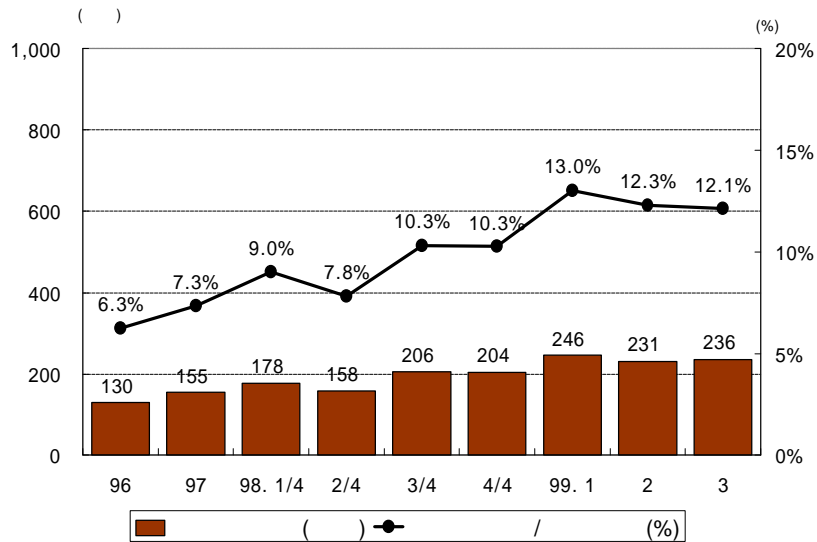
< 취업형태별 임금근로자 수 추이 >



-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상용직의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이하로 하락함
- 또한 99년 들어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취업자 비중도 전체 취업자의 12%

- 대 이상을 기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3월 중 단시간 취업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76.4만 명이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26.2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시간대별 취업자 수 추이 >



【전망 : 4월 이후 하락세 지속】

- 계절적 요인이 소멸되고 기업들의 신규 채용 경색이 일부 해소되면서 4월 이후 실업률은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그러나 구직난이 일부 해소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대할 것으로 보여 실업률의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움

< 실업률 전망 >

	97년	98년	(전년동기대비, %)	
			99년(p)	
			상반기	연간연간
실업률(기간 평균)	2.6	6.8	8.3	8.0

소비 : 회복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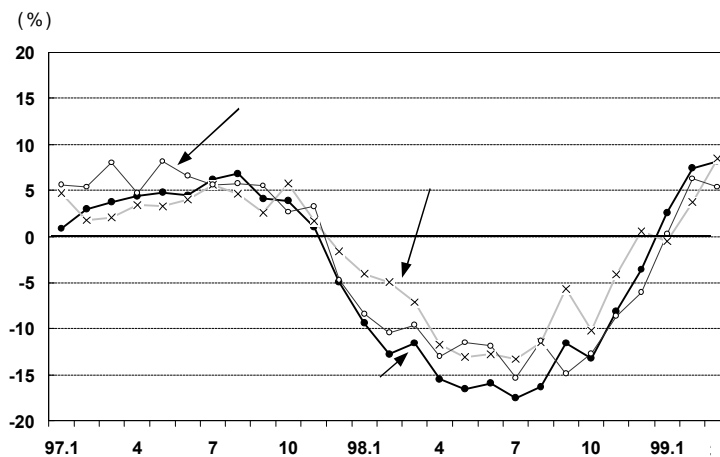
이 보 성 (bslee@hri.co.kr ☎ 724-4035)

2월 중 도소매 판매는 자동차의 판매 호조와 도매업의 증가세로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하여 1월 이후의 증가세를 지속함. 이는 주식시장의 호조로 인한 자산 가치의 상승, 임금 상승 및 98년의 급속한 위축에 대한 상대적 반등 등에 기인함. 향후 이러한 요인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 회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7%대의 고실업이 소비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향】

- 3월 중 도소매 판매는 자동차 판매 호조 지속 및 도매업의 큰 폭 증가로 전년 동월비 8.2% 증가하여 1월(2.6%), 2월(7.4%)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전월 대비로도 1.5% 증가세를 보여 지난 8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 자동차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68.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2월에 57.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종합소매업도 35.5%의 급등세를 이어감

< 최근 소비 동향 >



【소비 증가세의 배경】

- 소비 회복세의 배경으로는 자산가치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소득 증가를 들 수 있음
 - (98년에 대한 상대적 반등) 98년 중 도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12.7%나 감소하였던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최근의 소비 회복세의 주요인으로 작용
 - (자산가치의 상승)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로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280선까지 하락하였던 주가가 800선을 넘어서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매매가 및 토지가격도 3월말 현재 98년말에 비해 각각 1.8%, 0.4% 상승함
 - (임금 상승) 지난해 2.5%(전산업 기준)의 하락을 보였던 명목 임금 증가율이 99년 들어 2월까지 4.6%의 증가세를 기록함

【전망 : 실업이 소비 회복의 걸림돌】

- 주식 시장의 호조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어 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연중 7%대의 고실업이 소비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가계의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한 본격적인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이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에 2.7%의 상승세로 반전되고, 연간으로는 3.1% 증가할 전망

< 소비 전망 >

(전년동기대비, %)

	97년	98년(e)	99년(p)	
			상반기	연간
최종소비지출	3.5	-8.2	2.9	3.2
민간소비	3.1	-9.6	2.7	3.1

투자 :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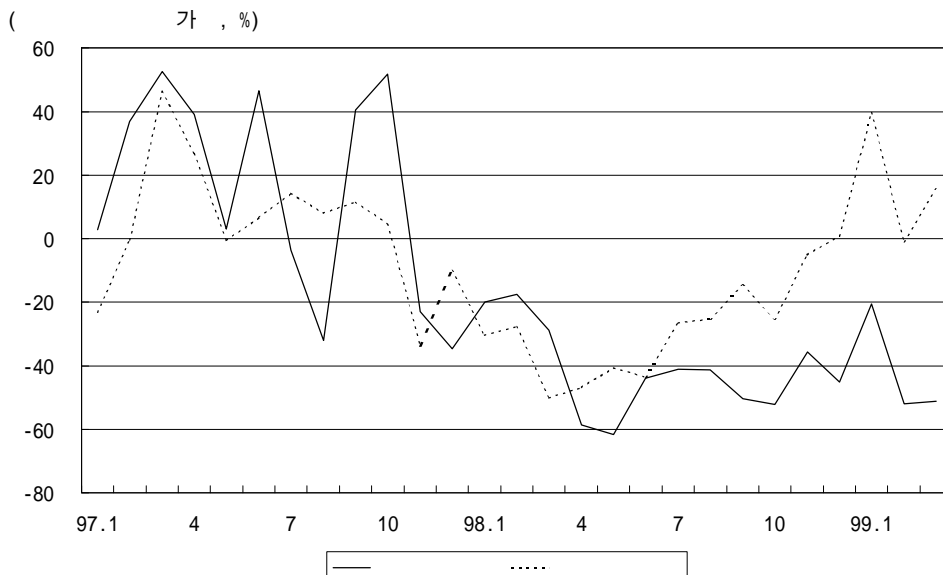
전 민 규 (mkjun@hri.co.kr ☎ 724-4015)

기계수주는 완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수주는 여전히 침체를 지속하고 있음. 다만 설비투자의 경우 기계수주가 증가세이기는 하지만 수주 규모는 94년 이전 수준에 불과하여 수치상의 반등 측면이 강함. 그러나 건설수주는 수치상의 반등도 없이 부진세를 지속하고 있음

【동향】

- 3월 중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며,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
 - 국내기계수주는 15.8%, 기계류수입액은 28.3%, 기계류내수출하는 12.5% 증가하는 등 설비투자 관련 지표들이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 반면 국내건설수주는 -51.1%, 건축허가면적은 -29.6%의 증가율을 보여 건설투자 관련 지표들은 여전히 심각한 부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투자 관련 지표 추이>



【투자 부진의 배경】

- 설비투자의 절대 규모 미약

- 99년 중 예상되는 설비투자 증가세는 투자의 활성화보다는 전년의 투자 실적이 워낙 부진하였던 것에 대한 상대적 반등의 의미가 강함
- 물론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설비투자가 더 이상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설비투자의 증가세 반전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의 절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1/4분기 중 국내기계수주가 4조 6,655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는 95년 동분기의 국내기계수주액 5조 5,254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국내 경제의 투자 수준이 4년 이상 후퇴한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 위축의 원인과 회복 가능성

- 설비투자가 주로 기업들의 설비 확장, 정부의 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건설투자는 민간의 주택 수요 등과 같은 경기 후행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음
- 또한 건설투자의 경우 수주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가 예상외로 갑자기 좋아지더라도 투자로 곧장 연결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건설투자의 증가세 반전은 최소한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건축허가면적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예상보다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경우 하반기 이후 다소 회복될 가능성도 있음

< 투자 전망 >

(%)

구 분	1997	1998	1999(전망)	
			상반기	연간
총고정자본형성	-2.2	-21.1	-8.7	-4.7
건설투자	2.3	-10.2	-14.8	-9.4
설비투자	-8.7	-38.5	4.1	6.2

대외거래 : 자본재에 의해 주도된 수입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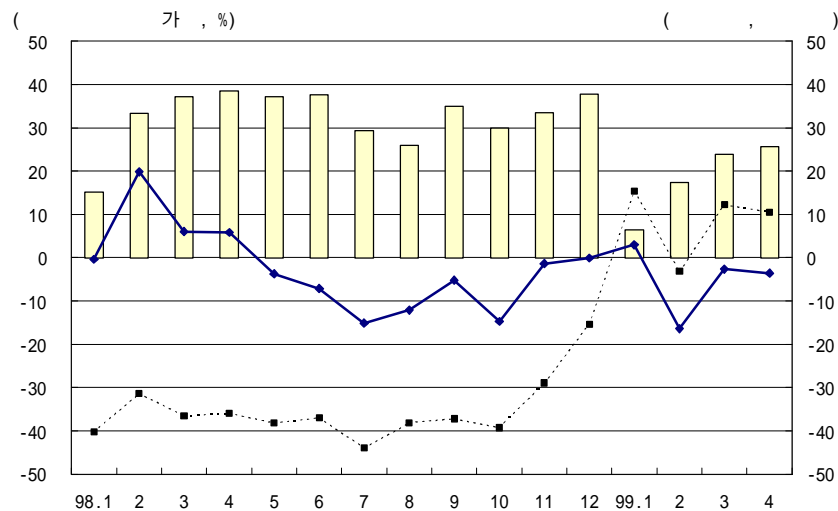
전 민 규 (mkjun@hri.co.kr ☎ 724-4015)

4월 중 수출이 3.6% 감소한데 비해 수입은 10.5%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수입 증가세는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수출용 수입이 전년도에 지나치게 감소하여 국내 재고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원자재 수입은 아직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원자재 재고 소진으로 하반기 이후 수입이 증가할 경우 전체 수입 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동향】

- 4월 중 우리나라의 수출은 3.6% 감소한 반면 수입은 10.5%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의 38.5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25.6억 달러에 그쳤음
- 반도체, 선박, 자동차, 가전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섬유, 일반기계 등의 품목이 부진을 보였으며, 수입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수출입 추이 >



【수입 증가의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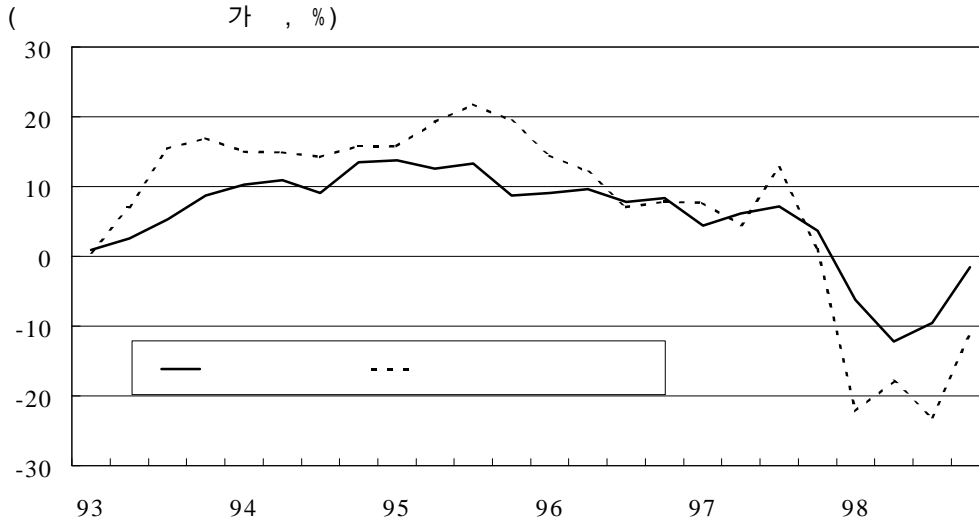
- 최근의 수입 증가세는 자본재 수입 증가가 주도하고 있음
 - 반도체, 산업용 전자, 정밀기계 등과 같은 자본재 수입의 증가가 전체 수입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소비재 수입도 증가 추세에 있음
 - 반면 원자재의 경우 아직도 수입이 소폭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국내 원자재 재고의 감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98년 중의 수입 감소에 따른 상대적 수입 증가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음
 - 수출 금액과 수출용 수입 금액의 비율을 비교해 볼 때 97년에는 수출 1,362억 달러를 위해 506억 달러를 수입함으로써 이 비율이 0.372를 기록하였음
 - 이 비율은 98년 중 0.341로 하락하였음. 이는 수출용 수입이 수출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99년 들어 0.405에 이르는 등 수출용 수입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수출용 수입과 수출 금액간의 비율 추이 >

	96	97	98	99. 1/4
수출용 수입(억 달러, A)	486.3	506.0	450.7	122.8
수출(억 달러, B)	1,297.2	1,361.6	1,323.1	303.6
A/B	0.375	0.372	0.341	0.405

- 98년 중 원자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에 따른 반등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 98년 중 국내 산업생산이 7.3%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원자재 수입(금액 기준으로 34.0%, 물량 기준으로 18.6%)이 지나치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원자재 수입 감소는 국내 원자재 비축 물량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 원자재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수입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99년 들어 원자재 수입은 금액 기준으로 1.5% 증가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자본재 수입 증가세에 더하여 하반기 이후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산업생산과 원자재 수입 물량 증가율의 비교 >



【수출입 전망】

- 수출 호조와 부진 요인 혼재속에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
 - 세계 반도체 경기 회복, 미국 경기의 호조 지속, 아시아 경제의 최악 국면 통과 등이 수출 호조 요인이 될 것이나, 선진국의 수입 규제 강화, 엔저, 원화 절하 등은 수출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반면 수입은 내수 회복과 지나친 원자재 수입의 감소에 따른 반등 효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수출입 전망 >

구 분	1997	1998	1999(전망)	
			상반기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82	400	132	228
무역수지(통관기준)	-85	390	120	222
수출(억 달러)	1,362	1,323	654	1,333
(증가율, %)	(5.0)	(-2.8)	(-2.5)	(0.8)
수입(억 달러)	1,446	933	534	1,111
(증가율, %)	(-3.8)	(-35.5)	(13.2)	(19.1)

물가 : 인플레이션 압력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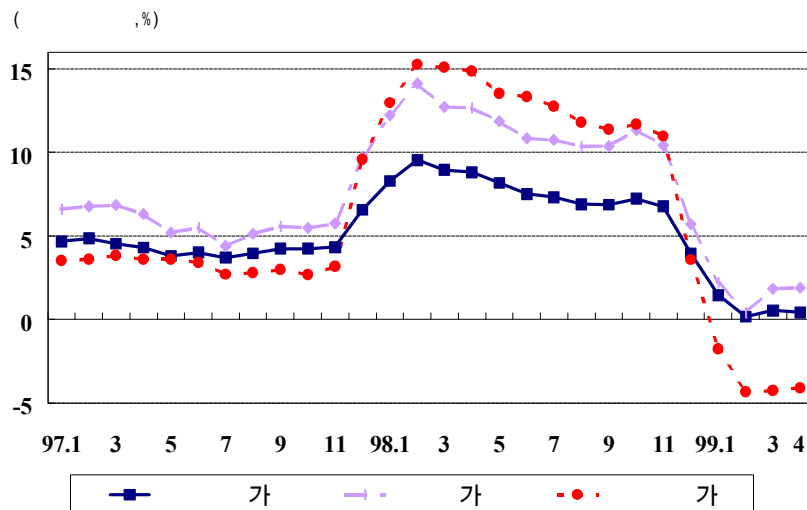
김 범 구 bkkim@hri.co.kr

내수 부진 지속, 유가를 제외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전년의 급등에 따른 기술적 요인 등으로 99년 중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그러나 대내외 불안 요인 상존과 전년 5월 이후 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률은 다소 높아질 전망

【동향】

- (소비자물가) 집세(-0.4%)와 개인서비스요금(-0.2%)이 하락하였으나, 저장농산물 출회 부진으로 농축수산물가격(0.8%)이 오르고 석유류 인상 등으로 공업제품가격(0.4%)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
 - 전년동월대비로는 0.4%, 전년동기(1~4월)대비로는 0.6% 상승
 - (생활물가)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로는 1.9% 상승

< 최근 물가 동향 >



- (생산자물가) 농림수산물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공산품 가격 상승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98년 11월 이후 5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
 - 전년동월대비로는 -4.1%, 전년동기(1~3월) 대비로는 -3.6% 기록

【전망】 인플레이션 압력 미약

- 내수 부진 지속, 유가를 제외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전년의 급등에 따른 기술적 요인 등으로 99년 중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유가를 제외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여전히 안정세 유지
 - 또한 전년 급등에 따른 기술적 요인으로 99년 소비자물가는 지표상으로는 3% 이내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그러나 대내외 불안 요인 상존과 전년 5월 이후 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률은 다소 높아질 전망
 - 3월말 OPEC의 감산 합의 이후 Dubai産 원유가격이 15달러선, WTI 가격이 18달러선까지 상승하는 등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2/4분기 중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으로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전망이고, 소비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여기에 전년 5월 이후 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점까지 감안하면 하반기 중 물가 상승률은 3~4%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 5월 소비자물가 전망 >

(전년동월대비, %)

	97년	98년	99년									
			1/4분기				2/4분기(p)		상반기(p)	하반기(p)	연간(p)	
			1월	2월	3월	4월	5월(p)					
소비자물가	4.5	7.5	1.5	0.2	0.5	0.7	0.4	1.2	1.3	1.2	3.0	2.1